

마른 대지, 붉은 재앙의 그림자...광주·전남 산불 ‘경계’

전남 건조주의보 옛새채 발령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우려

광주와 전남지역에 잇따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작은 불씨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광주에서는 36건의 산불이 발생해 9.34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5건의 산불이 발생, 0.43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전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434건의 산불이 발생해 무려 1,105.28ha에 달하는 광활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광주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올해 4개월간 발생한 산불만 해도 29건에 달하며, 9.3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전남지역의 월별 산불 발생 건수는 1월 9건(2.56ha), 2월 3건(3.34ha), 3월 14건(2.49ha), 4월 3건(0.95ha)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곡성·구례·광양·순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28일에는 여수·장흥·강진과 함께 광주 전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건조주의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산불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경북 울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의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된 바 있어, 이번 건조주의보 발효에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9시 1분께 순천시 서면 판교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를 포함한 장비 15대와 인력 99명을 투입, 2시간 14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06ha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대구 합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재발하는 등 산불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산을 끼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상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진영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야간 산불 진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 운용이 가능한 최신 다목적 헬기 확보가 시급하다”며 “드론을 활용한 열 및 연기 감지와 함께 드론-헬기 간 연락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서는 현장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 진화보다는 주변 연소 확대 방지 및 인명 피해 절감에 집중해야 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산림청 산불 진화 전용 차량이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현재 미흡한 유관기관 간 상호 연락 체계를 개선해 현장 지휘대와 헬기 간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 정확한 화점 파악과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광주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며 “산림 인접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아동권리 특별전 ‘열두달의 어린이날’ 103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30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리는 아동권리 특별전 ‘열두달의 어린이날’ 전시회를 찾은 시민 등이 달력으로 만들어진 아동 권리 존중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5·18기념재단, 5·18문학상 시상 논란 ‘공식 사과’

유공자 차명숙씨에 머리숙여 사죄 “재발 방지·피해 회복 최선 다할 것”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해야 할 5·18기념재단이 5·18 유공자인 차명숙씨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작품에 5·18문학상을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5·18기념재단은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이자 유공자인 차명숙씨가 겪은 5·18 당시 피해 사실을 왜곡한 서술이 포함된 도서를 5·18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며 “이로 인해 차명숙씨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과 공동으로 5·18문학상을

운영해왔다.

문제가 된 작품은 2022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고영서 시집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에 수록된 작품 해설로, 해당 평론에는 차명숙씨의 피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은 해당 도서가 2021년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작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원순식 이사장은 피해 당사자인 차명숙씨의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원 이사장은 “5·18 피해 당사자를 존중하고 유공자를 예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시집에 5·18문학상을 수여했다”며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 것은 재단의 중대한 잘못이다”고 사

과의 뜻을 전했다.

재단은 문제 인지 직후인 지난해 8월 작가, 평론가와 함께 차명숙씨를 만나 사과했고 피해 당사자의 요구 수용과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5·18기념재단은 △5·18문학상 수상작 선정 과정 강화 △5·18당사자 보호 및 왜곡 대응 체계 구축 △사과문 공고 게시 및 정정보도 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원순식 이사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 등으로 상처를 입으시고, 40여년 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으신 차명숙씨에게 사과드린다”며 “5·18 기념사업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피해당사자와 유공자를 존중하며, 매사 면밀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검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압수수색

간부급 직원 뇌물수수 의혹

검찰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급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광주 남구 소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

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급 직원 A씨가 관련 사업을 발미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준 기자

환경단체, 한빛원전 모조품 납품 전수조사 촉구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한빛원전에 모조품이 납품된 것을 규탄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빛원전이 냉각재 정화와 농도 조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전동기 베어링을 모조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몰랐다. 또 납품업체가 SKF사의 공식 문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허술한 관리로, 정부와 한수원의 안전관리 불감증을 증명해 주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한빛원전 모조품 사태는 반복되는 원전 부품 비리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무책임은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비리와 부실관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시도는 몰염치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모조 부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다”며 “당장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핵발전을 가동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안전성은 백전 천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며 “노후 핵발전소는 더 늦기 전에 폐쇄 수순을 밟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기사 제보 바랍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